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1월 20일(금)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4명 중 1명, 미래가족의 모습으로 ‘복지제도 발달로 부양부담 없는 부모자녀관계’ 원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인이 생각하는 2030년 가족의 미래’ 조사결과 발표
가족정책, 2030년 가족문제의 핵심을 잡고 있는 2030 세대 특성에 주목할 필요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1월 20일(금)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애리

(연락처: 02-3156-7296 /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보고서 관련 문의 :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41 / 이메일: hkchang@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2030년 가족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미래 여성·가족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20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2030년 한국인의 미래인식 및 가족의 미래에 대한 전망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년 일반사업인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 정책전망(Ⅰ)」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약 자료를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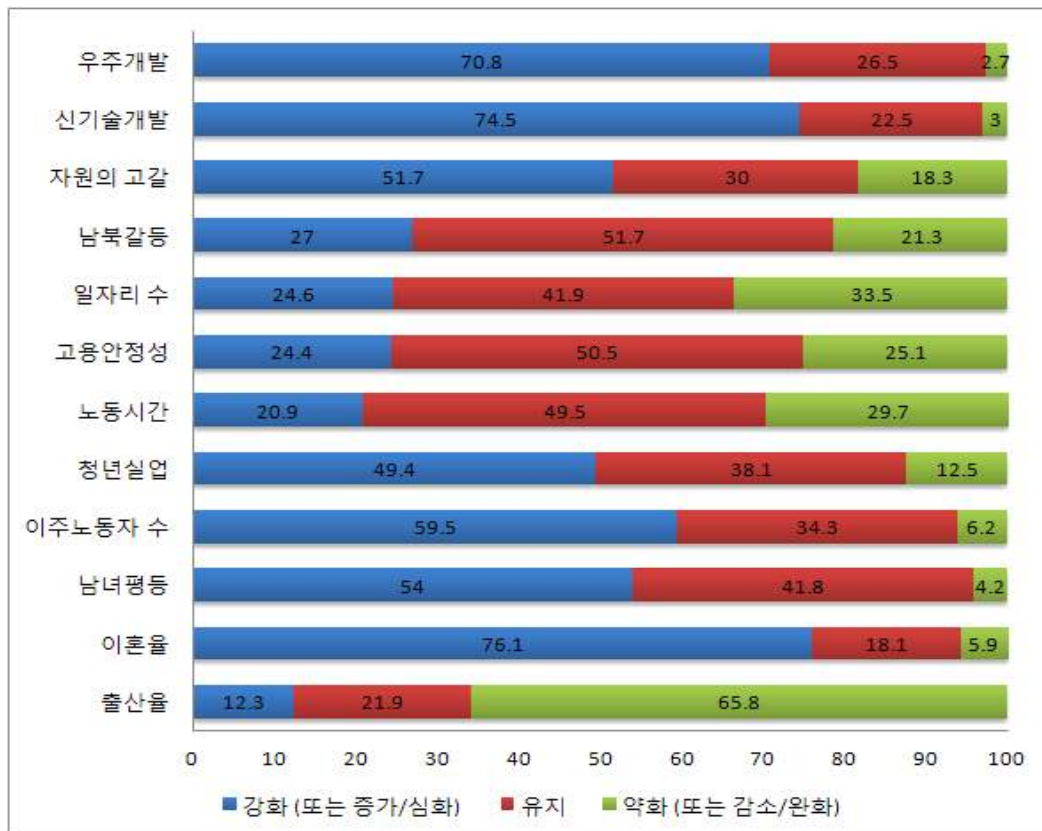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혜영·정재훈(2011).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혼율, 남녀평등, 이주노동자수, 청년실업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일자리 수

- 한국인은 현재의 사회현상 중 이혼율, 남녀평등, 이주노동자 수, 청년실업, 자원의 고갈, 신기술개발, 우주개발은 미래에 더욱 강화 혹은 증가 및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일자리 수, 남북갈등 현상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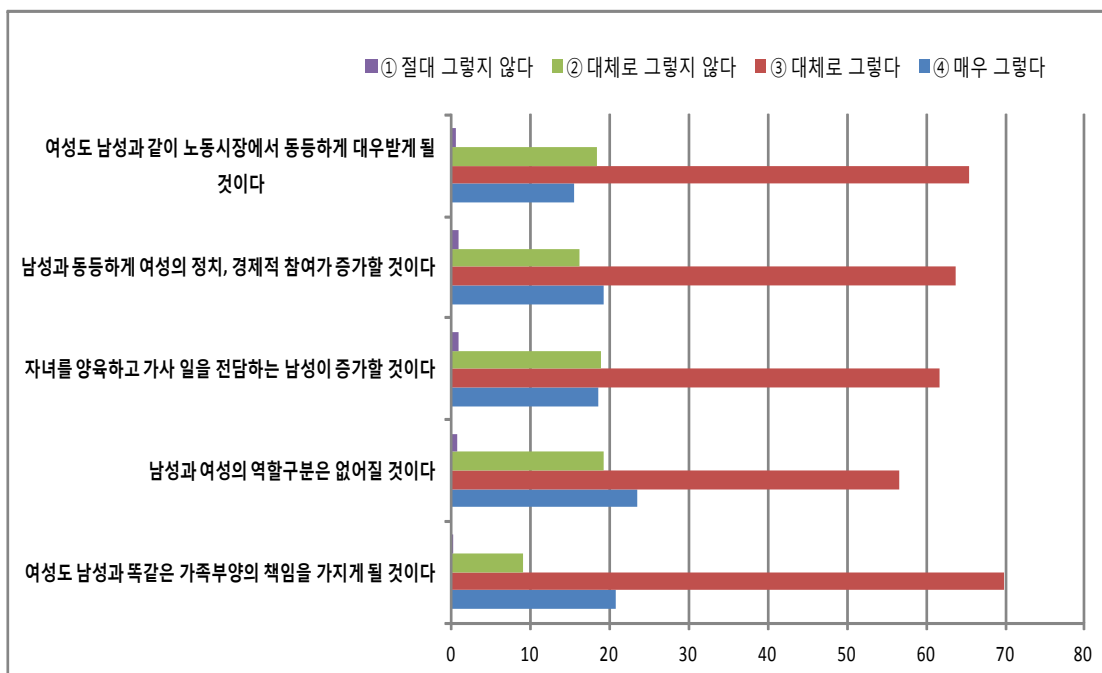


[그림 1] 2030년 경 사회현상의 변화 전망

□ 다양한 영역에서 남녀역할 동등성 확보

- 남녀역할의 형평성에 관한 전망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여성의 역할은 가족, 정치, 경제, 노동시장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단위: %)



[그림 2] 2030년 경 남녀의 역할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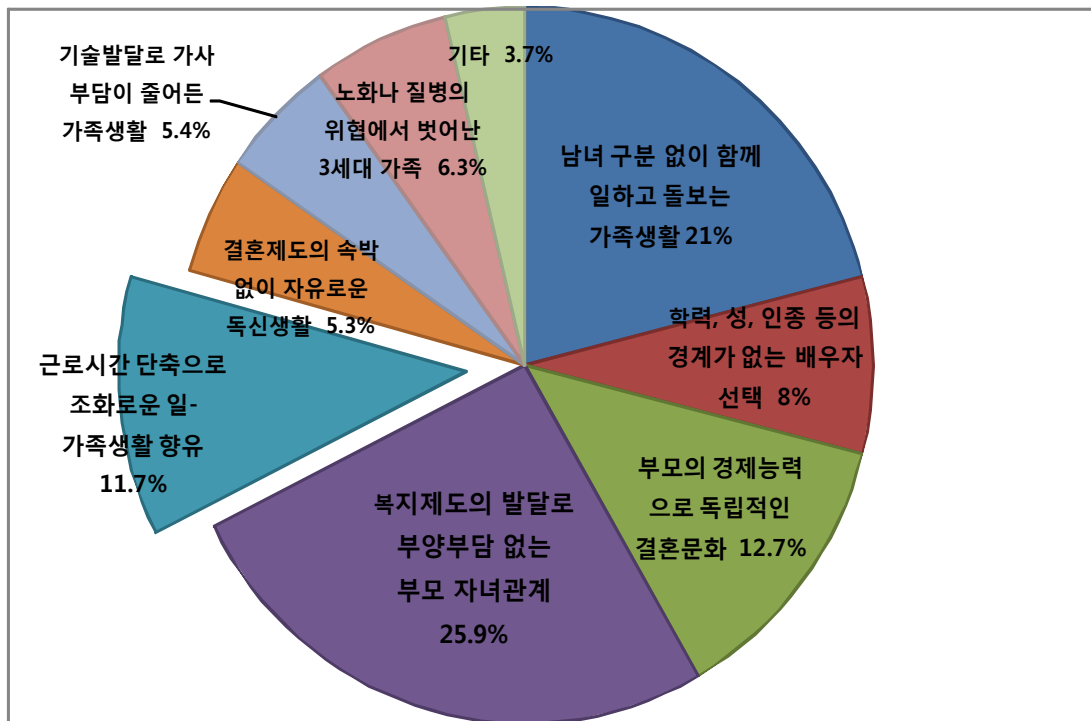
□ 복지제도가 발달로 부양부담 없는 부모자녀관계 원해

- 전체 응답자의 1/4가량이 2030년 희망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복지제도가 발달하여 부양부담이 없는 부모자녀관계, 남녀구분없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유연하고 평등한 가족생활,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결혼문화조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가족

생활의 조화를 들고 있음.

- 위 결과는 곧 현실사회에서 당면한 문제의 해법과도 연동된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자나 정책당국자 모두 관심 있게 논의해야 할 주요 사안일 것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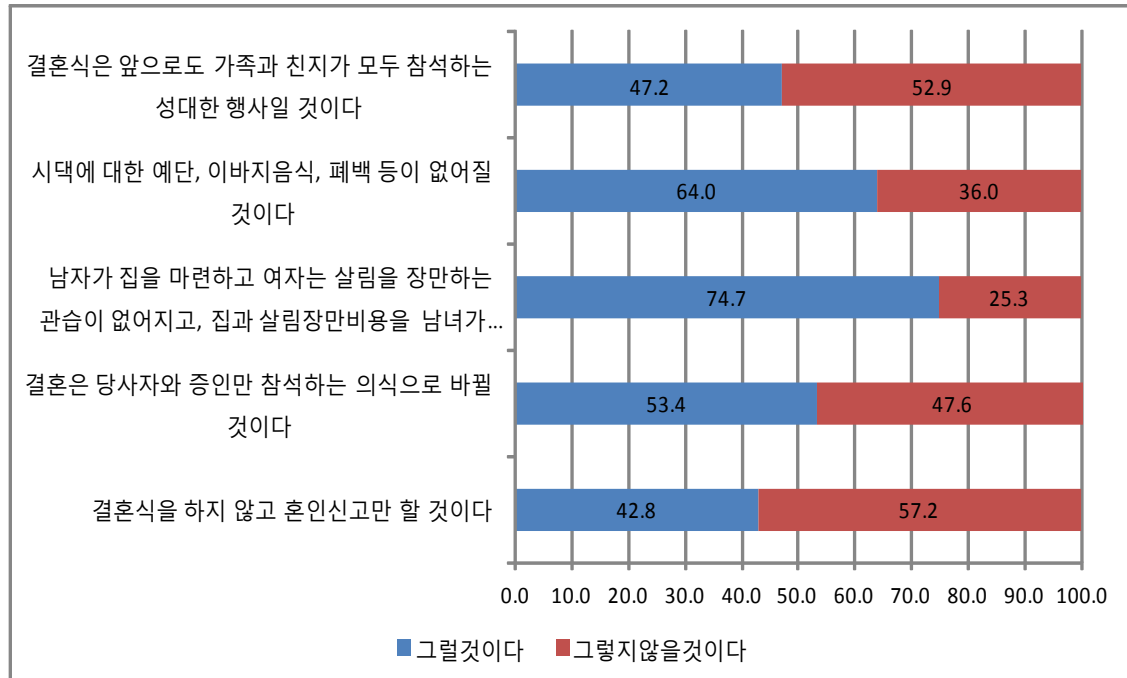


[그림 3] 2030년 경 가장 희망하는 가족생활 모습 1순위

□ 결혼예식, 가족간 결합으로서의 혼인의미 축소

- “결혼식은 당사자와 증인만 참석하는 의식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문항에 53.4%가,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할 것이다”라는 문항에 42.8%가 그럴 것이라고 응답하여 한국인들은 미래에는 결혼예식의 의미가 축소되고, 가족간 결합으로서의 혼인의미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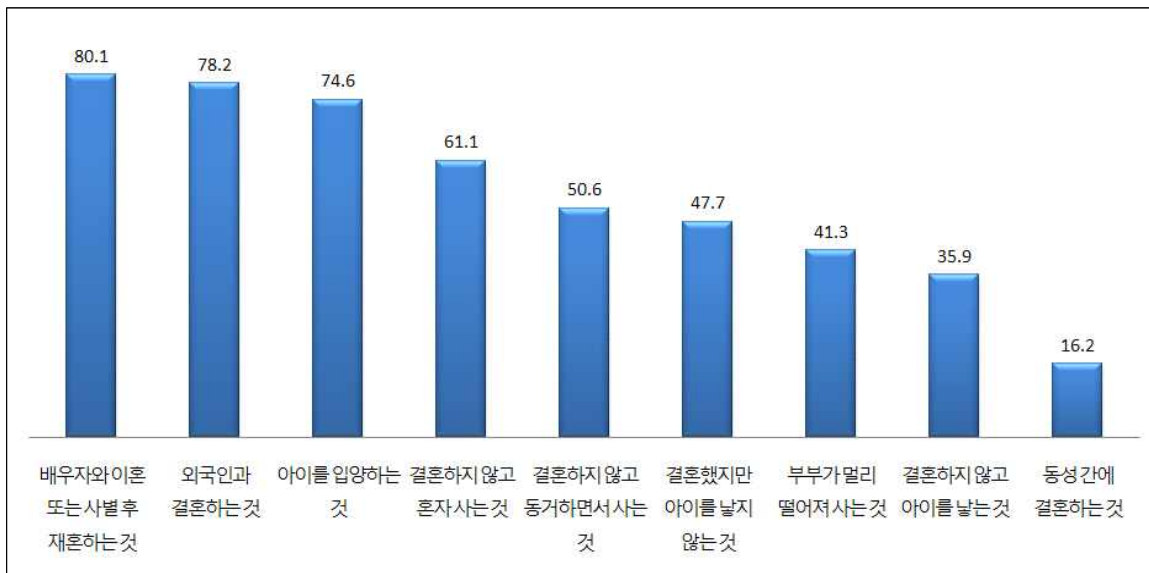


[그림 4] 2030년 경 결혼의례 변화 전망

□ 재혼, 국제결혼, 입양에 대한 수용도 높은 반면,
미혼모, 동성결혼에 대한 수용도 낮게 나타나

- 2030년에 나타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서는 이혼·사별후 재혼 찬성이 80.1%, 국제결혼 찬성이 78.2%, 입양 찬성이 74.6%로 재혼, 국제결혼, 입양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하지 않고 독신 찬성은 61.1%, 결혼하지 않고 동거 찬성 50.6%로 비혼 가족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혼 출산 찬성은 35.9%, 동성간 결혼 찬성은 16.2%로 미혼모, 동성결혼에 대한 수용도는 낮게 나타남.



[그림 5] 2030년 경 가족구성방식에 대한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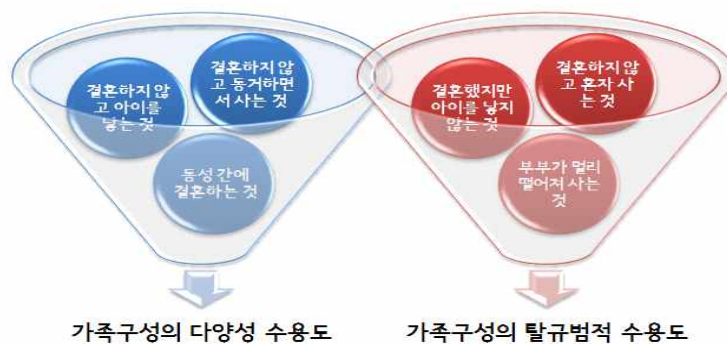
□ 미래엔 가족구성의 다양성 수용도 높아질 것 전망

-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에 나타날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가족수용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위해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관련요인별로 묶고 (①과②) 분포된 집단 구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3+3으로 수렴됨.

: 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부부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것’

⇒ ①은 결혼-동거-출산·양육의 규범적 순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가족구성방식
→ ‘가족구성의 다양성 수용도’로 명명

vs ②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
⇒ ②는 혼전 동거 및 출산, 동성결혼으로 보다 적극적인 가족규범의 탈피 및 일탈적 내용을 담음
→ ‘가족구성의 탈규범적 수용도’로 명명



[그림 6] 가족수용도의 두 축

-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2030년 한국인들의 가족수용성 지형은 4개 집단으로 분리할 수 있음.

[표 1] 가족수용성 특징에 따른 구성집단

군집	가족수용성 특징	비중	구성집단 특징
1	두 가지 가족수용성이 모두 높음	38.1%	- 주로 20대·30대의 젊은 세대, 고소득층이 많이 분포 - 대졸이상 여성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 군집에 속함
2	양쪽 수용성이 모두 낮으면서 상대적으로 탈규범적인 가족 수용성이 매우 낮음	48.3%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 특히 50·60대 노년층, 저소득층, 중졸 이하 학력에 다수 분포
3	가족구성의 다양성은 수용하지만 탈규범적인 가족구성의 수용성에는 적극 동의하지 않음	10.5%	- 소득과 학력에서 중간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
4	양쪽 수용성이 모두 낮음	3.1%	- 전체적으로 분포가 매우 작음



[그림 7] 2030년 경 한국인의 가족수용성 지형

□ 가족정책, 2030년 가족문제의 핵심을 잡고 있는 2030 세대 특성에 주목해야

- 비록 숫자는 아직까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래 가족문제의 열쇠를 잡고 있는 2030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가족정책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음.
- 이들은 더 이상 규범적인 당위성에 의해 결혼, 출산, 양육의 ‘부담’을 짊어지지 않는 만큼, 당위성이 아닌 결혼과 출산 자체의 매력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월 27일(금)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3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연구결과를 홍보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I) 연구성과발표회 - 한국인이 생각하는 2030년 가족의 미래 -”를 개최한다.

붙임. 1 행사개요

붙임. 1 행사개요

- 행사명: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I) 연구성과발표회
- 일시 및 장소: 2012.1.27(금) 오후 2시~5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3
- 프로그램

•14:00-14:20 등 록

•14:20-14:30 사 회 김 혜 영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인 사 말 최 금 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30-15:50 발 표 1 “ 2030년 인구가족전망과 한국인의 미래인식”
장 혜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발 표 2 “2030년 한국인이 희구하는 가족생활”

김 영 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3 “2030년 한국인의 가족수용성 지형”

김 은 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50-16:00 휴 식

•16:00-17:00 종합토론 윤 효 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민 현 주 경기대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교수

이 철 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 재 경 KT 경영연구소 미래전략팀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도자료 끝.